인삼산업의 미래전망

최재을 | 충남인삼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장

고려인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약용작물로 효능이 우수하여 오래전부터 동양의 중요한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우수성 때문에 고려시대는 가장 중요한 국제 무역품 중의 하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인공재배 및 홍삼가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17세기 후반에는 조선과 일본, 중국을 잇는 동아시아 교역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였고, 이에 따라 인삼 교역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조선 왕족실록에는 인삼이라는 단어가 1,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으며, 기록 내용을 보면 사신과 공신 등의 선물, 조공, 교역, 왕실의 보약 등으로 사용하는 귀중품이었다.

이러한 고려인삼의 역사적 배경과 효능의 우수성 때문에 오랫동안 홍콩시장 등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품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도 미국삼이 홍콩과 중국으로 수출되면서 한국의 백삼은 홍콩과 중국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에는 1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홍콩과 중국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인삼의 수출은 일본, 베트남, 미국, 유럽, 중동, 남아메리카 등으로 확대되어 시장의 다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삼산업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홍콩, 미국 캐나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국내 인삼산업의 여건도 점점 저하되고 있으므로 인삼산업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려인삼 약효의 우수성과 품질은 많은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정재배 등에 의한 우량한 원료삼의 생산, 직파재배 및 기계화에 의한 원료삼의 원가 절감, 기능성 물질의 표준화된 제품생산, 마케팅 전략 등이 해결된다면 고려인삼의 옛 명예를 되찾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실을 얻기 위하여여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타개방법과 인삼산업의 미래를 전망을 예측하여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현황

인삼 재배면적은 1970년 3천ha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 1만ha 이상으로 증가하여 1992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수출 감소와 경쟁국들의 도전 등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면서 1996년에는 8.9천ha까지 감소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배면적은 매년 서서히 증가하여 2006년 16.4천ha까지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 19.7천ha까지 증가하였다.

수삼 생산량은 1970년 2천 톤 미만이었으나 1985년 재배면적의 급증과 함께 1만 톤을 초과하였다. 2008년에는 재배면적과 단당수량의 증가로 24.6천 톤, 2009년 27.5천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출액은 1980년 66백만 달러에서 1990년 1억 65백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1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02년에는 55백만 달러로 급감하였다. 2004년에는 89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드디어 2009년에 1억불을 달성하였다.

〈표 1〉 인삼산업의 연차별 변화

구 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4	2006	2008	2009
재배면적 (천ha)	12.2	11.4	10.1	8.9	10.4	12.5	13.0	12.9	13.1	16.4	19.4	19.7
생산량 (천톤)	13.9	13.5	14.3	10.2	11.5	13.7	13.2	16.7	14.7	19.9	24.6	27.5
수출액 (백만달러)	165	144	114	113	82	79	75	55	89	89	97	110

인삼관련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 1984년 백삼, 1996년 홍삼 전매제의 폐지이다. 그러나 전매사업의 폐지 초기에는 군소업체의 난립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과다경쟁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였다. 즉 대외적으로는 해외시장에서의 과당경쟁으로 해외 바이어에 대한 협상력 저하를 가져왔고, 종래 인삼공사 중심의 고급제품으로서의 국내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중저품의 군소업체가 그 위치를 정착시키지 못하여 대부분의 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또한, 급속한 경제발전은 농촌 노임의 상승을 초래하였고, 인삼 집산지에서는 초작지 부족으로 출장재배에 따른 경영비 증가는 인삼노임상승과 함께 경영의 수익성을 감소시켰으며, 국제적으로는 고려인삼의 가격 상승과 판매 전략의 부진으로 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국제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인삼 종주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백삼과 홍삼의 전매제 폐지를 갈망하였던 인삼산업 관련 중소업체는 자본과 기술이 열약하고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안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최근에 인삼농협 및 중소기업 등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인삼산업의 유통질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그 비율은 인삼공사에 비하여 열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인삼공사는 정관장이라는 명품 브랜드와 품질 고급화로 국내외 인삼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삼산업의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인삼생산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과 청정인삼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인삼재배의 기계화와 직파재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배여건인 차광시설내에서의 기계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기계화는 차광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규격화가 되어야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기후가 미국이나 캐나다와 다르므로 이들의 차광구조를 모방할 수는 없지만 시설의 규격은 유사하게 하고 누수를 막는 차광망 등을 개발한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직파재배는 기계화의 촉진과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직파재배를 늘리기 위해서는 형태에 따른 등급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 형태는 인삼의 효능과 무관하므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관련기관에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정인삼 즉 무농약재배 인삼의 생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차광시설에서 누수를 완전히 막고 친환경자재의 개발과 이용이 병행될 때 무농약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농약재배는 국내 소비자에게 안정성 확보와 품질우위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다.

인삼포장에서의 청정재배는 현재의 재배기술로는 많은 위험성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시설재배라고 생각한다. 시설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인삼재배용 상토의 개발, 온도 및 기온 제어 기술 등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이미 시설재배용 상토 및 용기, 하우스 시설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성공단계이고 농가 보급을 위한 최종점검 단계에 있으므로 인삼의 식물공장 또는 도시농업으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삼제품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표준화된 기능성 제품 생산이 필수적이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인삼의 효능은 면역증진, 피로회복, 혈소판 응집억제에 의한 혈행개선, 기억력 개선이다. 그러나 인삼의 진세노사이드의 종류가 많고 종류에 따라 기능도 다양하다. 2종류의 진세노사이드가 4종류의 기능성을 대표하는 성분은 아니다. 따라서 기능성별로 사포닌의 종류와 함량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능성 성분의 함량 범위도 넓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인삼의 효능은 간장보호 작용, 중금속 제독작용, 당뇨병에 대한 효과, 항암효과, 면역기능의 강화, 노화방지 효과, 비만 및 저체중의 정상화, 알코올의 해독작용 및 숙취예방, 류머티즘 개선, 갱년기 장애와 생식기 계통의 정상화, 아토피 치료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임상 시험과 성분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인삼의 효능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혈당강하와 노화억제라고 생각된다. 인삼의 항당뇨 효과는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미흡하고 항당뇨 활성성분, 약물학적 기전 등

에 대한 연구결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려인삼이 항당뇨 효능입증과 동시에 항당뇨 효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진세노시이드의 비율 및 함량이 결정된다면 국내는 물론, 아시아, 북미 유럽 등으로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화억제 효능은 화장품에서 이미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 미백효과와 주름방지 화장품 등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노화억제효능이 얼굴뿐 아니라 인체의 노화억제에도 효과가 검증되어 진다면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한국과 외국의 선진 국가에서도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인삼산업의 전망

인삼의 재배면적은 인삼가격의 안정과 소득의 증대 등에 크게 좌우되므로 현재의 상황이 유지되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인삼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인삼공사가 2011년 매출액 목표를 2010년 8,400억 원의 35.5%를 증가시킨 1조원으로 정하였다. 해외 매출액도 2010년 7,300만 달러에서 금년에는 1억 5,000만 달러로 크게 늘려 잡고 있다. 이러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 일본, 미국에 11개의 해외지사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인삼산업의 전망은 당분간 밝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삼산업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재배 및 가공기술의 개발과 유통질서의 확립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연구자, 국가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인삼발전을 위해 합심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번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하여 인삼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충남도민은 물론 인삼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분들의 협력을 기대해 본다.